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 여름을 맞이하여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원드 산장
 (명절특별행) 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특별요금형선제 실시
 ● 예약: www.npdynashy.co.kr 0801-320-7700

베이징 올림픽 한국 금메달 예상 캘린더

8 금 개막식 ▶김찬미	9 토 사격:남 10m 공기소총 유도:남 60kg 최민호 역도:여 48kg 임정화	10 일 수영:남 자유형 400m 박태환 양궁:여 단체 사격:여 10m 공기권총 펜싱:남 에페 정진선	11 월 양궁:남 단체 유도:남 73kg 왕기춘 펜싱:여 플리레 남현희 ▶박태환	12 화 수영:남 자유형 200m 박태환 레슬링:남 그레코로만 60kg 정지현 펜싱:남 사브르 오은석	13 수 펜싱:남 플리레 최병철 역도:남 77kg 이재혁	14 목 양궁:여 개인전 체조:남 개인종합 양태영 레슬링:남 그레코로만 84kg 김정섭 ▶박성현	15 금 양궁:남 개인 베드민턴:여 복식 펜싱:남 단체 에페	
16 토 역도:여 75kg 이상 정미란 베드민턴:남 복식 ▶정미란	17 일 수영:남 자유형 1500m 박태환 탁구:여 단체 결승	18 월 탁구:남 단체 결승	19 화 체조:남 평행봉: 양태영, 김대은 철봉:김지훈 ▶김대은	20 수 레슬링:남 자유형 66kg 정영호	21 목 태권도:남 68kg 손태진 여 57kg 임수정 ▶손태진	22 금 태권도:남 80kg 이상 차동민 여 67kg 황경선 하키:여 ▶하키:여	23 토 핸드볼:여 탁구:남 단식 유승민 복싱:남 51kg 이옥성	24 일 육상:남 마라톤 이봉주 복싱:남 69kg 김정주 폐회식 ▶이봉주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개막식 철저한 보안유지 속 '사상 최대의 불꽃 쇼' 예고

‘세계 9번째 불가사의’.
 중국인들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계 8대 불가사의’ 다음 자리에 올린다는 얘기가. 그만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 있다.
 개막식과 관련된 준비 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 총감독을 맡은 장이머우(張藝謀)에서부터 운전기사, 경비에 이르기까지 기밀엄수선서를 했다.
 집안사람에게조차 비밀 누설은 죄가 된다. 누설할 경우 7년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러다 지난 16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깜짝 쇼를 연출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불꽃놀이 예술가 차이귀강(蔡國強)을 등장시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차이는 “난 개막식 시각 총감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개막식은 사상 최대의 불꽃 축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개막식의 첫 모습이다.
 차이 감독은 “주 경기장인 나오퉈오(鳥巢) 상공에 2008개의 불꽃이 걸리면서 웃는 얼굴을 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웃는 얼굴 수천 개가 경기장 상공을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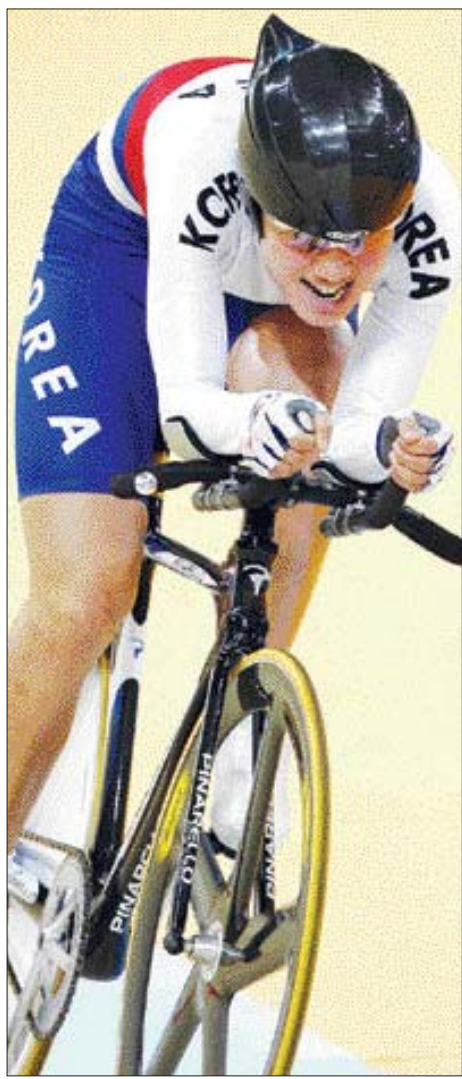
뿐만 아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불꽃놀이도 진행된다. 주경기장-천안문-토성(土城)을 잇는 길이 3.5km짜리 초대형 불꽃 쇼가 등장한다.
 이 쇼는 베이징 외곽에서 시작해 천안문을 거쳐 주 경기장으로 날아드는 것으로 묘사된다. 전 세계가 베이징의 품 안에 안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막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리허설이다.

물론 주변 접근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나 귀까지 막을 순 없다. 지난 16일 밤 나오퉈오에서 실시된 제2차 개막식 리허설은 폭죽 소리로 시작됐다. 곧 이어 한국 전장에 참전한 중국인민해방군을 소재로 다룬 영화 ‘상간림(上甘嶺)’의 주제가 ‘나의 조국(我的祖國)’이 흘러나왔다.
 이 정도만해도 대단한 성과다. 개막식의 앞 부분을 어렵듯이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남자 어린이가 ‘나의 조국’을 부르며 국기인 오성홍기를 건네면 군인들이 이 국기를 계양하는 것으로 개막식 1부가 시작된다”고 귀띔했다.
 8월8일 밤 8시부터 3시간30분 동안 진행되는 개막식의 백미는 50분간 진행될 개막식 공연 1, 2부와 성화 점화다.
 특히 점화 방식은 비밀 중의 비밀이다.

리허설과 관련된 한 참석자들은 “급색 봉황이 불을 뿜길 것”이라고 귀띔했다. 즉, 새 동지를 닮은 주 경기장의 상공에서 봉황이 내려와 성화를 점화한 뒤 불사조로 부활한다는 내용이다.
 고대 천방국(天方國)에 사는 전설 속의 새 봉(鳳-수컷)과 황(凰-암컷)이 500년을 산 뒤 동지를 불태우고 불사조로 거듭난다는 전설 ‘봉환소(鳳還巢)’로부터 착안한 내용이다.
 양 총감독도 “새 동지 경기장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점화 방식도 그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봉환소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jrkrccm@paran.com



폭발적인 스피트...따를 자 없다

메달 기대주

⑬ 사이클 이민혜

베이징올림픽 여자 사이클 포인트레이스에서 출전하는 이민혜(23·서울시청)는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기대하는 재목이다.

세계 수준과 아직 거리가 있는 다른 종목과 달리 이민혜는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급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기록경기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상대적인 순위를 가리는 포인트 레이싱 종목이 당일 경주 전개에 따라 이민혜는 많은 점도 메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단거리 종목에 중점을 둔 훈련하던 이민혜가 포인트 레이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6년·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트랙종목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따라 중장거리 및 도로 선수로 전환하면서부터다.

이민혜는 처음으로 출전한 포인트 레이싱였던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현재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있는 리안(중국)이 1점차로 아깝게 겨우 메달을 차지하면서 재능을 나타냈다.

2007년 스위스 아이글에 있는 국제사이클연맹(UCI) 산하 세계사이클센터에서 집중 훈련을 받고 실력을 키운 이민혜는 지난 1월 UCI 트랙월드컵 3차전 포인트 레이싱에서 은메달을 따내고 주목을 받았다.

UCI 포인트 랭킹 19위에 올라 있는 이민혜의 장기는 단거리 출신다운 폭발적인 스피트.

포인트 종목이 2.5km 벨로드롬을 100바퀴 돌면서 매 10바퀴마다 집중적인 스피트를 펼쳐 승부를 가리는 가운데 이민혜는 스피트에서만은 다른 선수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을 갖고 있다.

경주 도중 지나치게 속도를 내다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일이 잦을 정도로 과감한 성격 역시 장점이다.

독주를 좋아하는 이민혜의 전략은 경주 도중 적절한 시점에 치고 나가 메인 그룹을 한 바퀴

따라잡는 것.
 포인트 레이싱에서는 10바퀴를 돌 때마다 1위에게 5점을 주지만 한 바퀴를 따라잡는 선수에게는 20점을 주기 때문에 따라잡기에만 성공하면 메달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최근 컨디션도 좋다. 지난 5월 아시아선수권 대회 도로독주 경기 도중 내리막에서 속도를 내다가 펜스에 부딪혀 3주 가량 입원했지만 곧바로 재활을 받고 일어나 금세 회복했다.

6월 말부터는 영주 벨로드롬에서 일주일에 700~800km를 달리는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몸무게를 7kg 가량 빼고 지구력을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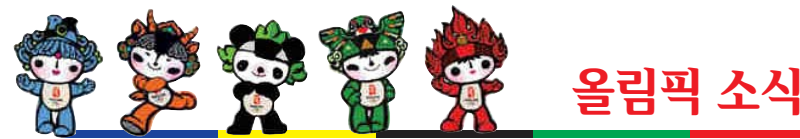
한국 사이클은 조효성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포인트 레이싱에서 4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한 차례도 메달권에 다가서지 못했을 정도로 세계 수준과 거리가 멀다.

남자보다 선수층이 얇고 사정이 열악한 여자는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김용미가 포인트 레이싱 17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 이를 잘 알고 있는 이민혜는 꼭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바라볼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표다.

연습뉴스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둔 29일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 내 한국선수촌 숙소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 /연습뉴스



올림픽 소식

남핸드볼 메달 '청신호'...우승후보 폴란드 제압

한국 평가전서 33-27 승리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폴란드와 평가전에서 완승을 거둬 2008 베이징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밝혔다.

김태훈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9일 낮 인천 도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홈플러스와 함께 하는 남자핸드볼 최종 평가전'에서 폴란드를 33-27, 6점 차로 제압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은메달 이후 20년 만에 올림픽 메달 획득을 노리는 한국은 지난해 초 독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력한 우승 후보 폴란드를 제압하며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켜다.

한국선수단 내달 5일 입촌식

○중국 대륙에서 세계 10강에 도전하는 한국선수단이 베이징올림픽 개막 사흘전에 선수촌 입촌식을 갖고 결의를 다진다.

29일 베이징올림픽 선수촌에 따르면 한국선수단은 8월5일 오후 2시 선수촌 국가광장에서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그레나다와 함께 합동 입촌식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선수단 분진이 1일 베이징에 도착하며 입촌식에는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과 김정영 한국선수단장을 비롯

해 당일 훈련이 없는 선수 100여명과 임원 등이 참석한다.

베이징 경기장 입장권 매진

○베이징(北京) 시내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의 입장권이 28일 현재 완전 매진됐다고 중국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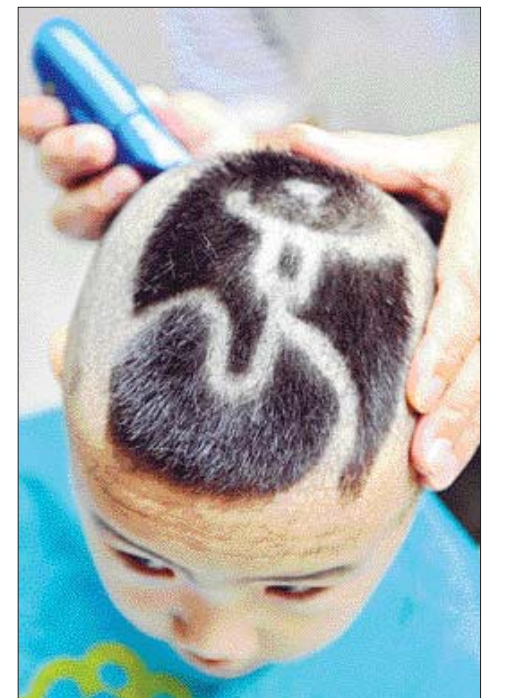
일간 징화스바오(京華時報)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 입장권 담당센터는 28일 베이징 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의 입장권이 소진됐으며 베이징 밖에서 분산개최되는 축구경기 입장권만 제한된 분량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입장권 판매의 4단계 중 마지막인 경기장 현장판매(82만장)가 시작된 지난 25일 하루 베이징 시내 19개 현장 매표소 중 14곳에서 표가 매진됐다.

홍은성 '가장 가벼운 남자선수'

○한국 남자 필드하키 국가대표인 홍은성(25)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 선수 중 가장 가벼운 선수로 등록됐다.

메인프레스센터(MPC)의 인터넷인 '인포 2008'에 등록된 각각 선수 정보에 따르면 남자 선수 중에서는 45kg의 홍은성이 가장 가벼웠고, 몸무게 100kg 이상급 대표 라카르도 블라스(22)가 181kg으로 가장 무거웠다.



한 중국인 소년이 29일 베이징의 한 학교에서 베이징 올림픽 엠블럼을 새긴 모양으로 이발하고 있다. /연습뉴스

또 여자선수 중에서는 31kg으로 등록된 중국 여자 기계체조 대표 덩린린(16)과 167kg으로 등록된 우크라이나 역도 75kg 이상급 대표 올라 코르보카(23)가 각각 최경량·최중량 선수로 나타났다.

남자 최장신 선수는 중국 농구의 희망인 야오밍(226cm)이었고, 남자 최단신 선수는 나란히 가나의 복싱 대표로 올림픽에 나서게된 142cm의 프린스 옥토퍼스 드자니(23·페타)와 아흐메드 사라쿠(22·미들급) 등 2명이었다.

또 한국농구의 하은주, 러시아 농구의 리시나와 스토포파노바, 러시아 배구의 가모바와 메르클로바 등 5명이 나란히 202cm를 기록하며 최장신 여자선수들 등록됐다.

연습뉴스